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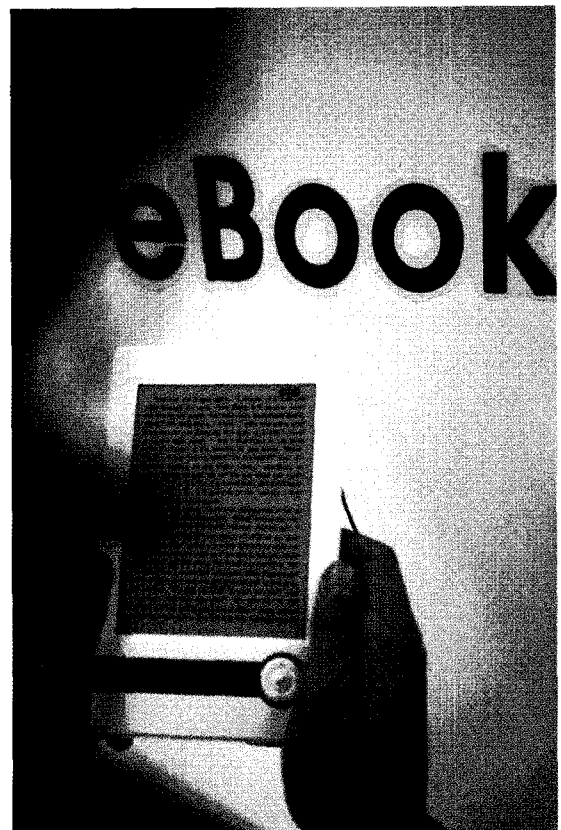
기 고



60 살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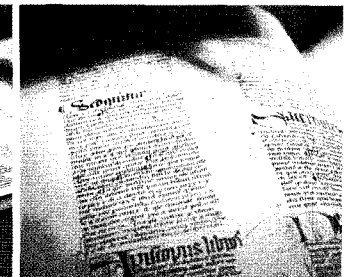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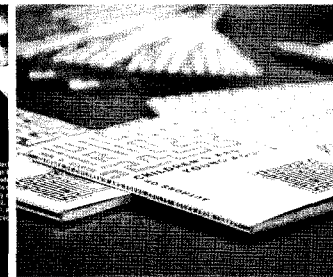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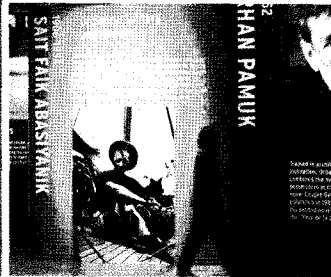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개최됐다. 김남수 청아문화사 대표는 한국관 공동부스에 참가해 전시회 기간동안 바이어 상담, 국제시장 동향 파악 등으로 누구보다 바쁘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치러냈다.

기고_ 김남수 청아문화사 대표





올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는 전 세계에서 101개국 7374개 출판사가 참가해 40만 여종의 책과 관련 작품을 선보였다



매년 10월이 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Frankfurt Am Main)에서 세계 최대이며 최고의 도서전이 열린다. 지구촌 최대의 문화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도서전시회는 독일 출판인 서적상협회가 주최하며 매년 30여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규모와 질적으로 그 위용을 자랑한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

15세기 초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발명된 이후 브흐메세 (Buchmesse : 책시장) 라는 이름으로 인쇄업자와 작가들이 모이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잠시 중단되었다가 1949년 독일의 출판업자와 서적업자들이 모여서 다시 재개하여 요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Frankfurt Am Main은 독일 헤센주 중남부에 있는 도시로 라인 지구대 북부의 라인 강 줄기인 마인 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금융업과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오늘날에도 금융, 보험, 경제단체, 주식시장 등이 집중해 있는 곳이다.

한국관(한국인쇄 - 한국출판)

올해의 인쇄업계는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주관하지 않는 바

람에 한국의 인쇄사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청아문화사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함께 부스에 자리했다.

한국은 모두 60여 개 출판사들이 공동부스에 참가를 하였고 개인부스로 직접 참여한 곳은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사계절 등 16개 출판사와 또한 팩컴코리아는 단독부스로 바이어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지난 5월 'IPA 서울총회' 이후 높아진 한국출판의 위상을 다지는 한편 내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이 도서전에는 전 세계에서 101개국 7374개 출판사가 참가해 40만 여종의 책과 관련 작품을 선보였다고 주최측은 전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던 금융위기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도 영향을 미쳐 1% 정도 참가사들이 줄었다고 한다. 1961년부터 참가해 온 우리나라는 208m²의 부스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도서 960여종을 전시했다.

도서전

전세계에서 각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이 '책'이라는 관심사 하나로 이 도서전에 몰려 드는 이유는 우선 전 세계 도서 저작권의 25%가 거래되고 최신 출판정보가 오가는 최대의 시장



이기 때문이다. 한국만해도 지난 해 이 도서전에서 449건의 저작권 상담을 벌여 114건, 118만 5200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며 올해는 12만 달러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협회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올해의 화두

금번 도서전에는 전체 전시 도서의 30% 이상이 디지털 형태로 출판된 가운데 '전자 책(e-book)'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디오, 비디오, 만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형태의 서적이 60%에 이르러 '디지털 출판'이 거세게 다고 오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세계적 작가들은 "출판사들은 웹을 적으로 보지말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전세계 e-북 시장규모는 지난해 305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3억 달러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언론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전자책은 불법파일 공유 등의 문제 때문에 출판업계에선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최대의 적- 중국과 일본

우리 한국관 앞과 옆쪽에 위치한 중국과 일본 부스는 한국부스보다 늘 많은 인파로 붐비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수년 전에는 한국관보다 작은 중국부스가 지금은 엄청나게 커져 두려움을 느낄 정도다. 인쇄사들도 대거 참여하여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저렴한 경비로 제작을 원하는 수많은 세계 출판 현터들에게 좋은 사냥터가 되어주고 있었다. 일본 역시 그들의 고유 캐릭터 사업과 만가(만화)로 세계의 많은 출판인들의 발목을 잡았다. 뚜렷한 이미지와 영업전략이 없는 한국으로선 부러울 따름이었다.

주빈국(Guest of honour)

올해의 주빈국은 터키이다. 터키는 가장 큰 문학의 무대에서 그들의 나라를 알릴 좋은 기회를 가졌다. 또한 그들은 250명의 작가와 100개사의 출판사가 전시회에 참가하여 세계의 모든 출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특히 올 도서전에는 총 2500여 개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중 400여 개가 주빈국이었던 터키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그의 절반은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또한 터키의 노벨수상자의 오르한 파묵(Orhan Pamuk)의 '표현의 자유' 라는 연설은 전시회의 하이라이트였다.

청아문화사

올해로 다섯 번째로 참가하는 나는 수출담당인 김춘옥 팀장과 함께 바이어들을 맞이했다. 어정쩡한 부스위치와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한파로 인해 예년보다 적은 듯한 바이어들의 발길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양쪽 옆에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인쇄사들의 부스가



왼쪽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참여했던 청
이문화사 부스 모습
● 딸 희준이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강점인 저가(Low Price)로써 비즈니스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질적인 면에서 우리 제품을 부각시켰고 현재 거래처로서 선적 중에 있는 크로아티아의 출판사 CEO를 만나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였다.

하지만 매번 전시회를 마감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은 좀더 철저한 준비가 아쉬웠다는 점이다.

우리 딸 희준이

매번 도서전에 참가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도 가보고 싶었던 막내 딸 희준이가 학교시험 일정 때문에 하루 늦게 독일로 찾아왔다. 경비를 줄이느라 호텔에 가지 못하고 민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전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과정을 희준이는 좋아라 했다. 나 역시 혼자 출장을 가던 그 어느 때보다도 심심치 않은 즐거운 일정을 보냈다. 특히 만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형상화한 코스프레 복장을 한 학생들이 쏟아져 입장을 하는 것을 보며 희준이는 마냥 신기해했다.

왜?

그렇게 올해로 60회를 맞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성대한 막을 내렸다. 왜? 왜 우리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 앞선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금속활자를 발명해놓고도, 도서전 규모는 1/10도 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국민들의 독서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희준이 같은 우리의 미래가 있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의 모자란 모습과 자랑스러운 우리문화를 희준이는 어떻게 조합하여 생각을 할까?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욱 비전을 갖는 학생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내년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로 다른 나라의 인쇄업체들과 다시 겨뤄볼 생각이다.☺